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목표

김 명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의 성과여부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쟁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교육목표이어야 사회주의 교육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움으로써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혁명적인 목표이다.

혁명은 한두해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를 이어가며 해야 할 사업이다.

청소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주인공이며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의 대를 어떻게 이어나가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운동력사는 어떤 교육목표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교양육성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는가 아니면 사회의 우환거리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전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에서의 교육목표는 대체로 청소년학생들을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인재로 키우는것이였다. 사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키울데 대한 내용은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고 학생들이 문제거리로 되고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사회적의식을 높여줄데 대하여 강조한것이 전부였다.

1980년대 말엽에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의 수도에서 일어났던 대학생들의 란동은 새 세대들을 옳바로 키우지 못하면 사회주의를 고수하기는커녕 사회의 우환거리가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때 그 나라 대학생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을 받은 불순이색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수도의 광장에 모여 반사회주의구호를 부르짖으며 란동을 부렸다. 결국 그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고 제국주의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인권유린》이요, 《독재》요 하면서 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 국제적제재조치를 취한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 비극적사실앞에서 사람들은 아연하여 《청년들이란 역시 사회적우환거리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주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무한정 눌러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정신적으로 병든 새 세대들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것은 교육목표를 단순히 과학기술인재로만 규정한 나라들에서 필연적으로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후대들과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다.

주체교육에 의하여 육성되는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의 첫째가는 징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혁명가이다. 위대한 사상으로 개척되고 전진해온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으로정은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가들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건전한 사상정신과 함께 창조적능력은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징표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이 평가되고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키워 그들을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것 역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이다.

조선혁명은 그 누구의 힘을 믿고 시작한 혁명이 아니라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발동하여 시작하고 전진해온 혁명이다.

오늘의 엄혹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를 구상하였고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방도도 과학기술로 정하였다.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준비된 인재들, 강성국가건설의 역군들로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인재에 대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된 목표가 우리 당이 제시한 새 세기 교육혁명목표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에는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인재의 자질과 품모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품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학탐구의 길에 한생을 바쳐도 영광이고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과학자, 인재들을 키우는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목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인재》들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리윤추구이다. 리윤만 있다면 나라와 민족도 버릴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신조이다.

우리 당의 교육혁명목표, 인재양성의 목적은 조국과 인민을 부강하게 하고 잘살게 하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줄 아는 애국자, 혁명가를 키워내는것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목표는 다른것은 좀 늦출수 있어도 후대들을 키우는 문제만은 절대로 늦출수 없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이 반영되고 혁명의 미래가 확고히 담보된 혁명적인 교육목표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지니고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강성국가건설의 역군들로 자라날 때 우리 조국의 천만년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할것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다음으로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 가장 인민적인 목표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것과 함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일생동안 배울수 있는 훌륭한 교육체제와 환경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이 제시한 새 세기 교육혁명목표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주인은 다름아닌 전체 인민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응당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들이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강국의 높은 목표는 특정한 한두명의 과학기술인재에 의해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인재로 준비될 때 교육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는 재보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한 국력을 가질수 있지만 인재가 없으면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도 빛을 낼수 없고 발전된 경제와 군사력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오늘날 진정으로 강하고 흥하는 나라는 인재가 많은 나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바로 인재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국력이 좌우되는 현시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워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교육혁명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비상히 다그쳐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을 최신과학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고 능숙하게 활용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는 혁명인재들로 키울데 대한 사상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교육목표는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인민의 참된 령도자만이 내세울수 있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목표이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천시하는 사회, 교육의 모든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며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전민을 공부시킨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오늘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이 매우 큰것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독자적인 과학기술인재중시전략을 내세우고 인재확보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은 전체 인민의 범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모든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데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고 또 실현할수도 없는 인재양성과 그 대렬확보의 가장 높은 목표를 제기한 여기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위대성이 있으며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교육강국의 지름길이 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재쟁탈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물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자기 나라에서 부족되는 인재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사상은 철두철미 우리 힘으로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워냄으로써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인재육성과 그 대렬확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식의 인재양성사상이다.

나라의 발전과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과학기술인재육성문제를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과 결부시켜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켜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만들데 대한 사상이 바로 가장 인민적인 우리 당의 교육목표이다.

이처럼 우리 당이 제시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조국과 혁명의 미래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우리 당만이 제시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교육목표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